

2005년 東崇學術財團이 선정한 언어학자
李克魯(1893-1978)

고루¹⁾ 이극로(1893-1978)는 1893년 8월 28일 경남 의령(지정면 두곡리)에서 아버지 전의(全義) 이 씨 근주(根宙)와 어머니 성산(星山) 이 씨 사이의 5남 3녀 중 막내아들로 태어났다. 가정 형편이 어려웠던 그는 정식 교육을 받지 못하고, 농사짓는 틈틈이 어깨 너머로 한문을 배웠다. 그러다 18세 되던 1910년 신학문을 배우겠다는 일념으로 가출해 예수교회에서 운영 하던 마산 창신 학교에 입학하여 보통과 1년과 고등과 1년을 다녔다. 1912년 창신학교를 졸업하면서 이극로는 한일병합과 중국 신해혁명에서 비롯된 동양 정국의 대변동에 큰 자극을 받고 간도로 향했다.

(국어학 연구의 출발) 간도에 간 이극로는 동창학교(東昌學校) 교장 이원식(李元植)의 권유로 동창학교에서 교사 생활을 하면서, 윤세복(尹世復)²⁾과 박은식(朴殷植)³⁾, 그리고 주시경의 제자인 조선어교사 김진(金振)을 만난다. 동창학교 시절 이극로가 만난 이 세 사람은 그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윤세복과 박은식은 식민지 조국의 현실을 절감한 이극로에게 민족주의적 역사관을 확고하게 심어주었으며, 조선어교사 김진은 조선어 통일의 필요성을 인식⁴⁾하기 시작한 이극로에게 조선어연구의 방법론을 처음으로 일깨워 주었다.

간도에서 독립운동 상황을 목격한 이극로는 독립을 위해서는 군사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21세 되던 1913년 군사학을 배울 계획으로 레닌그라드로 향한다. 그러나 1차세계대전이 발발하여 뜻을 이루지 못하고, 만주와 시베리아를 오가는 방랑생활을 하면서 무장독립투쟁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24세 되던 1916년, 이극로는 이우식(李佑植)⁵⁾의 후원으로 상해로 가 독일인이 경영하는 동제대학(同濟大學)에서 수학하였다(1916-1920). 그는 동제대학에 재학 시 상해로 망명 온 김두봉을 만나 교류하면서 「갑더 조선말본」을 출간하는 데 일조하기도 하였다. 김두봉과의 만남은 조선어연구에 대한 그의 관심을 체계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독일 유학 시절의 활동) 28세에 동제대학 예과(豫科)를 마친 그는 공과(工科)를 선택하였지만 뜻에 맞지 않아 독일 유학을 결심하게 되었고, 우여곡절 끝에 1922년 베를린대학에 입학하였다. 독일 유학 시절 그는 경제학을 주전공으로 하였지만, 언어학과 인류학⁶⁾을 부전공으로 하면서 서구 언어학을 접하게 된다. 그리고 1923년 10월에는 대학에 건의하여 동방학부에 조선어과를 설치하고 1927년 3월까지 3년간 무보수 강사로 활동하기도 하였다. 이극로의 노력으로 서구 대학에 최초의 조선어과가 창설된 것이다. 또한 한글 활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 결과 독일 국립인쇄소의 지원을 받아내었으며, 상해의 김두봉에게 활자 한 벌을 받아 그것을

1) 이극로의 호 ‘고루’는 ‘골고루’란 뜻이다. 또한 그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적극적인 성격의 소유자란 뜻에서 주위 사람들로 부터 ‘물불’이라 불리기도 했다. 해방 이후에는 동정(東正)이라는 호를 사용하기도 했는데, 이는 ‘동방의 우리나라를 정의로운 나라로 만들자’라는 뜻이었다.

2) 윤세복(1881-1960)은 경남 밀양 사람으로, 1909년 安熙濟, 李元植, 金東三 등과 대동청년당을 조직하였고, 1911년 간도로 가 독립운동을 전개하였으며, 1924년 대중교 3세 교주가 된다. 그는 이극로의 정신적 스승으로 이극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다.

3) 역사학자이자 상해임시정부 2대 대통령.

4) 이극로의 자서전이라고 할 수 있는 「苦鬪四十年」에는 이극로가 간도에 갈 때 압록강변에서 겪은 일화가 소개되어 있다. 일화는 방언의 차이로 인해 의사소통에 지장이 생겼다는 내용인데, 이극로는 이 사건을 계기로 조선어 정리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한다.

5) 이극로와 동향 사람이었던 경남의 대지주 이우식은 조선어학회의 절대적 후원자였다.

6) 인류학을 민족문제와 연결시켜 봤던 이극로는 1946년 5월 8일 창립한 조선인류학회의 회장에 취임한다.

본떠 만든 4호 활자로 동방학부 연감에 허생전 몇 장을 인쇄하였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볼 때, 이극로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방법론을 고민하고 한국어의 국제화를 위해 노력한 최초의 국어학자라 할 수 있다. 그가 조선어사전편찬에 헌신하게 된 계기도 독일인에게 조선어를 가르치며 조선어사전의 필요성을 절감했기 때문이었다.

독일 유학 시절, 그는 권위 있는 음성학자들과 교류하였고, 이들을 통해 음성학의 이론과 실재를 체계적으로 습득하게 된다. 그가 음성학 연구를 본격적으로 진행한 것은 박사학위 취득⁷⁾(1927) 후, 1928년 1월부터 4개월간 베를린 대학 음성학 실험실에서 위틀로 교수의 지도로 조선어 음성을 실험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5월부터는 피실험자로 파리대학 음성학부의 페르노 교수와 스라메크 박사의 연구에 참여하였다. 또한 그해 6월에 런던대학에 가서 음성학의 권위자인 다니엘 존스 교수를 방문하여 조선어음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극로가 귀국 후「한글」지에 발표한 음성학 관련 논문은 이때의 연구가 발판이 된 것이라 볼 수 있다.

(귀국 후의 활동) 1928년부터 유럽 각국과 미국을 시찰한 후 1929년 귀국한 이극로는 민족어 운동의 중요성을 절감하고⁸⁾, 조선어연구회에 가입하면서 본격적으로 조선어 연구와 조선어 문화운동에 참여하게 된다. 그리고 그 해 경성여자사범학교를 나온 김공순(金恭淳)과 혼인하였다. 1929년 이후 이극로의 활동은 ‘어문정리 운동’과 ‘국어학 연구’라는 두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는 어문정리 운동을 주도한 조선어학회의 핵심 인물이었다. 그의 참여로 조선어연구회는 소규모 연구회에서 대중적 어문운동단체로 거듭나게 되었다. 조선어학회의 가장 큰 사업이던 조선어사전편찬 사업에서 그의 역할은 절대적이었으며, 이 때문에 조선어학회사건 공판 시 관련자 중에서 가장 무거운 형량인 6년을 선고받았다. 특히 조선어사전편찬회 결성은 그의 정치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조선어사전편찬회에 참여한 108명의 발기인들은 당대의 명망가와 사회 유지들이 망라되어 있었다. 이들에 의해 조선어사전편찬회는 그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전편찬에 드는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다. 조선어연구회에 참여하면 서부터 어문정리 문제에 대한 그의 생각이 지면을 통해 소개되기 시작하였다. 해방 이전까지 발표한 글에는 1938년에 발표한 ‘사전주해난’처럼 사전 뜻풀이의 정교화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글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조선어사전 편찬과정에서 부딪히는 ‘한글맞춤법’, ‘표준어’, ‘외래어표기법’ 등과 같은 언어규범 문제에 대한 것이었다. 이중 외래어표기법과 관련한 논의는 그의 음성학적 연구와 연결되어 있다.

- 1929.12. “조선어사전과 조선인.” 「별건곤」4-7.
- 1932.01. “조선말의 사투리.” 「동광」29.
- 1932.04. “후일에 엄정비판-한글 철자에 대한 신이론 검토-.” 「동광」32.
- 1932.05. “조선어 사전 편찬에 대하여.” 「한글」1.
- 1932.07. “중국은 표의문자에서 표음문자로.” 「한글」3.
- 1934.05. “조선어사전 편찬에 대하여.” 「학등」2-6.
- 1934.10.28. “한글 철자법 통일안 보급에 대하여.” 「동아일보」.

7) 그의 박사학위 논문은 “중국의 생사(生絲) 공업”이었으며, 이는 독일에서 출판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책이 국내에 소개되지는 않았다.

8) 아일랜드의 언어 현실을 목격한 것이 그가 민족어 운동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김일성, 「세기와 더불어」 8, 1998, 402쪽 참조.)

- 1935.01. “한글운동.” 「신동아」5-1.
 1935.03. “박승빈씨에게 합작교섭의 전말.” 「한글」22.
 1935.08. “조선어학회의 발전.” 「한글」25.
 1935.08. “외래어 표기법에 대하여-6월 29일 조선음성학회 강연 요지-.” 「한글」25.
 1935.10.11-17. “한글 바루 쓰고 바루 읽는 법.” 「조선중앙일보」.
 1935.10.28. “조선어문정리운동의 금후.” 「조선일보」.
 1935. 11.4-5. “한글 발달에 대한 회고와 및 신전망.” 「조선일보」
 1936.01. “조선어문정리운동의 금후계획.” 「신동아」.
 1936.02. “사전 편찬이 왜 어려운가.” 「한글」31.
 1936.11. “한글통일운동의 사회적 의의.” 「조광」2-11.
 미 상. “한글 철자법 통일안 보급에 대하여.” 「역대한국문법대계」3부 10책에 재수록.
 1937.07. “표준어와 사전.” 「한글」47.
 1938.01. “한글운동과 조선어사전.” 「조광」4-1.
 1938.08. “사전 주해난.” 「한글」58.
 1938.10. “어문정리와 출판업.” 「박문」1.
 1940.10. “외래어 표기 통일난.” 「한글」80.
 1946.06. “전문학교의 국어입학시험문제에 대하여.” 「한글」96.

이극로는 실험음성학적 방법론을 국어학 연구에 적용함으로써 국어학사에서도 주목할 만한 업적을 남겼다. 말소리의 물리적 속성을 파악하는 실험음성학적 연구 방법은 당시 학계에서 특기할 만한 일이었다. 그는 1930년부터 「한글」 등을 통해 발표한 논문들의 내용을 집약하여 1947년에 최초의 음성학 책인 「실험도해 조선어 음성학」을 출판하였다.

- 1930.09. “조선말 소리갈.” 「신생」3-9.
 1932.06. “말소리는 어디서 어떠한가.” 「한글」2.
 1932.09. “조선말의 훗소리.” 「한글」4.
 1932.10. “훈민정음의 독특한 성음 관찰.” 「한글」5.
 1933.08. “소리들이 만나면 어찌 되나-음의 호상 관계-.” 「한글」9.
 1934.08. “조선 말소리.” 「한글」15.
 1937.09. “. 의 음가에 대하여.” 「한글」48.
 1941.01. “‘·’의 음가를 밝힘.” 「한글」83.
 1947.11. 「실험도해 조선어 음성학」. 서울: 아문각.

「실험도해 조선어 음성학」 목차

一. 실험음성학의 기초

1. 음성 실험의 방법 2. 음성의 생리 3. 악센트
4. 훗소리 발생의 이(理) 5. 닿소리 발생의 이(理)

二. 음의 상관성

1. 소리의 이음 2. 닿소리의 만나 바꾸임 3. 소리의 줄거나 죽어짐
4. 소리의 끊음 5. 조선말 소리의 보기틀

이 사이 특기할 만한 사실은 이극로의 주선으로 1935년 제2회 국제음성학대회에서 조선어가 소개되었다는 사실이다⁹⁾. 국제음성학대회에서 조선어음을 전세계 음성학자들에게 소개하고자 한 조선어학회의 결정에 따라 이극로는 조선어음의 만국 음성부호 표기와 그 실험 및 해석 결과를 다니엘 존스 교수에게 전달하였고, 이것이 전세계 음성학자들에게 소개된 것이다. 음성학 분야 외에도 이극로는 언어일반과 형태론 및 국어사에 관련된 주제로도 몇 편의 글을 발표하였다.

- 1935.01. “조선말 입자씨의 토.” 「한글」20.
- 1935.02. “조선말 입자씨의 토(2).” 「한글」21.
- 1935.04. “조선말 입자씨의 토(3).” 「한글」23.
- 1935.11. “조선어의 시간 표시법.” 「한글」28.
- 1936.04. “훈민정음과 용비어천가.” 「신동아」6-4.
- 1936.08. “조선어 단어 성립의 분계선.” 「한글」36.
- 1937.06. “언어의 기원설.” 「한글」46.
- 1937.11. “짓말(態語)에 대하여.” 「한글」50.
- 1937.12. “동물계의 언어현상.” 「한글」51.
- 1938.11. “훈민정음의 ‘중간 ㅅ’ 표기법.” 「한글」61.
- 1939.01. “언어의 형태적 분류.” 「한글」63.
- 1940.10. “핀란드 말의 음운과 명사의 격.” 「한글」80.
- 1946.04. “에스페란토와 민족어.” 「한글」95.

해방 후 조선어학회 대표로 우리말 교육과 우리말 사전편찬 사업을 이끌어나갔던 이극로는 1948년 4월 16일 민족 분단을 막기 위한 남북연석회의 참석차 평양에 갔다가 그곳에 남게 된다. 이 때문에 그는 1948년 7월 12일부로 조선어학회 이사직을 사임하게 되었고, 조선어학회에서는 1948년 9월 12일 정기 총회에서 이극로를 명예이사로 추대하였다¹⁰⁾. 이 와중에 그가 작사해 해방 이후 한글날마다 불렀던 ‘한글 노래’¹¹⁾는 금지곡이 되어버렸다.

(북한에서의 활동) 남북통일이 불가능해지자 이극로는 북한 정권 수립에 참여한다. 그는 1948년 8월 25일 최고인민회의 제1기 대의원 및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이 되었고, 9월 9일에는 제1차 내각의 무임소상에 임명되었다. 한국전쟁 후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을 시작으로 제2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1957), 제3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1962), 조국통일 민주주의전선 의장(1964), 제4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1967), 조국평화통일 위원회 위원장(1970), 양강도 인민위원회 부위원장(1972)에 선출되는 등 80세가 넘을 때까지 왕성한 정치활동을 하였다. 이 과정에서 국어정책과 국어학 연구 활동은 계속되었다.

이극로가 무임소상에 임명되면서, 북한의 어문정책 수립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조선어문

9) “조선음성학 세계적 진출.” 「동아일보」, 1935.09.24.

10) 1948년 9월 12일 정기 총회에서 명예 이사로 추대. 회원 80명 중 39명(재경 회원 과반수) 출석. 「한글」 제13권3호(통권105호) 68면 참조. ‘한글 신문’의 ‘정기 총회’ 기사 내용 참조. ‘3. 기타 토의 사항, 이극로님을 명예 이사로 추대하다.’

11) 1. 세종 임금 한글 퍼니 스물 여덟 글자 사람마다 쉬 배워서 쓰기도 편하다.

2. 온 세상에 모든 글씨 견주어 보아라 조리있고 아름답기 으뜸이 되도다.

3. 오랫동안 묻힌 옥돌 같고 닦아서 새빛나는 하늘아래 골고루 뿌리세.

후렴) 슬기에 주린 무리 이 한글나라로 모든 문화 그 근본을 밝히려 갈거나. (「여성문화」 창간호, 1945.12.) 현재의 ‘한글 노래’는 위의 ‘한글 노래’가 금지된 뒤 1951년에 최현배가 지은 것이다.

연구회'가 교육성 안에 설치되었다(1948.10). 이극로는 무임소상으로서 조선어문연구회의 조직 책임을 맡아 '조선어문법'과 '조선어사전'을 편찬하는 사업에 착수하였다. 이후 그는 과학원 후보원사(1949), 조선어 및 조선문학연구소 소장(1952)에 임명되었다. 그리고 70세 되던 1962년에 다시 조선어 및 조선문학연구소 소장에 임명되었다. 이런 사실을 볼 때, 1966년 이후로 본격화된 문화어운동 사업은 그의 주관 하에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에서의 연구 활동을 보면, 언어정책과 관련한 연구는 '문자 문제'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국어학 이론과 관련된 연구는 악센트 등 어조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1966년에 발간된 「조선어조연구」는 1957년부터 진행된 악센트 연구를 집약한 것이다.

1950.05. “중국의 새글'자 운동.” 「조선어연구」2-2.

1953. “이.웨.스탈린의 로작 《맑스주의와 언어학의 제문제》에 비추어 본 공화국 언어학의 정형과 그 당면과업.” 「학보」(과학원)2.

1956.12. “조선문'자의 창조적 계승 발전을 위하여.” 「조선어문」6.

1957. “조선말 력점 연구.” 「과학원 창립5주년 기념 논문집」1.

1958.06. “소위 《6자모》의 비과학성.” 「조선어문」4.

1960. “조선말의 악센트.” 「말과 글」8.

1963.08. “북청 방언의 조(調) 연구.” 「조선어학」3.

1964.05. “체언에 붙은 접미사 《이》의 본질.” 「조선어학」3.

1966. 「조선어조연구」. 사회과학원출판사.

1978년 9월 13일 86세의 나이로 생을 마쳤다.

※ 참고로 한국어학회의 「한국어학」 17집에 '자료 발굴과 소개'에 나와 있는 '리극로' 부분을 첨부한다<끈제비치·심비르찌바의 “1950년대 말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의 조선 언어학 역사: 라치코프와 마주르의 개인 문헌 보관 자료 참조,” 「러시아 한국학」(모스크바 국립대학교 한국학 국제 센터 연감, 제2권, 모스크바: 모스크바 국립대학교 출판부, 2001년)>.

리극로(李克魯, 1897-?)[I /3] 북조선 아카데미의 어문학 연구소에서 일한 조선학의 구세대 언어학자 중 한 명. 그의 연구는 음성학 분야인데, 거기서 그는 모음의 길이 문제와 조선어 강세 문제를 다루었다. 그는 유럽에서 그것들을 쓴 것 같다. 우리와 함께 '표준 발음법'을 연구하였다.

1952년부터 북조선 아카데미 회원, 음성학자이며 역점을 연구했고, 연구물로는 「조선말 역점 연구」가 있다. 1957년 「과학원 창립 5주년 기념 논문집」이 발간되었으며, 지금까지도 참고 되고 있다. 그리고 조선어의 정음법 사전과 조선 문헌을 연구하였다. 상하이와 베를린에서 교육받았으며, 일제 침략 시기에 「朝鮮語辭典」 연구에 참여하였다. 1943년 '朝鮮語學會' 사건에 연루되어 일본

으로부터 탄압을 받았다. 광복 후 민주주의 운동에 참여하였고, 1948년 북으로 전향, 1차 최



고 회의 간부회에 남조선 의장으로 선출되었다. 1953-1961년의 최고 회의 간부회의 부회장을 역임했다. 북조선 내각에서 무임소 장관이 되었으며, 통일 민주주의 조국 전선의 중앙 위원회 회원을 역임했다.

<참고문헌>

金敏洙 編(1991). 「북한의 조선어 연구사」, 서울: 녹진.

金敏洙(1992). 「新國語學史」(全訂重版), 서울: 一潮閣.

김영환·권승모 편(1996). 「주체의 조선어연구 50년사」, 평양: 김일성종합대학 조선어문학부.

김하수(1992). “식민지 문화운동 과정에서 찾아 본 이극로의 의미.”, 「周時經學報」10.

박용규(2005). 「북으로 간 한글운동가 이극로 평전」, 서울: 도서출판 차송.

李克魯(1947). 「苦鬪四十年」, 서울: 乙酉文化社.

李相億(1989). “李克魯(1947), 「實驗圖解 朝鮮語音聲學」.”, 「周時經學報」3.

李鍾龍(1993). “李克魯 研究.”, 부산대학교 교육학석사학위논문.

최호철(2002). “자료 발굴과 소개.”, 「한국어학」17.

한겨레신문사(1991). 「발굴 한국현대사 인물1」, 서울: 한겨레신문사.

<2005년 11월 23일 최경봉>